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RC협의회 회장 허원준

Won-joon Hur, Chairman of 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지난 한 해 동안 한국RC협의회는 회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에 힘입어, 화학물질 관련 비상시 대응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화학방재연구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Outreach 활동을 통해서 화학제품 이미지 개선과 실생활에의 기여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화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Responsible Care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드 리더사들의 노력으로 유통, 제품전과정책임주의, 지역사회인식 등 신규 코드의 제정을 위한 기본안이 마련되었고, 자체평가를 포함한 기존 실행지침 코드의 이행도 각 사업장에서 순조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간정보레터 "Responsible Care Weekly" 서비스, KRCC 웹진 등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 협의회와 회원사 및 관계자들 간에 신속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은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GHS, REACH 등의 국제 협약과 규제가 화학 산업의 당면 과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요구되는 해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화학물질배출량조사제도가 확대, 강화되는 등 우리 산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향해 전세계가 이렇듯 행동을 같이 해 나가는 추세 속에서, 기업 또한 책임 있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Responsible Care의 능동적인 경영마인드와 전사적인 실천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새해는 또한 세계 화학산업계가 Responsible Care를 추진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제 화학단체협의회와 세계RC회의(RCLG)를 비롯한 각국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세계RC헌장(Global Responsible Care Charter)'을 작성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각국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한 많은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여 작성한 이 헌장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RC활동을 세계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조치,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 전과정책임주의의 강화, 검증절차의 채택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핵심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장의 내용은 앞으로 Responsible Care 참여 국가와 기업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RC협의회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발맞추어 2005년을 “RC 실행 확산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증진”의 해로 정하고, 다음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Responsible Care 실행코드를 확대하는 한편, 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제품전과정책임주의, 지역사회인식, 유통 등 신규실행코드의 도입과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부자문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RC 실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사회공헌 및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의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Outreach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회원사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화학방재정보서비스 제공과 비상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24시간 전화응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사의 비상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상호협력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RC Charter 이행을 비롯하여 세계 화학산업계와 보조를 같이하며,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9회 아시아·태평양 Responsible Care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참여와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뉴스레터와 웹진, 주간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동향 및 정책분석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한편 화학산업의 RC 활동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년에도 Responsible Care를 통한 사회적 실천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Responsible Care®

시장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

이 창 수 Chang-soo Lee
한국RC협의회 홍보위원장 / (주)로템엔드하스코리아 본부장
Chairman of KRCC Public Activities Committee
PCAS Korea Business Manager, Rohm and Haas Korea Co., Ltd.



이 시대에 각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순위에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안전/기업의 이미지/품질/수익성 등의 항목은 도외시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화학산업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설계, 생산 및 유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업계 및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지속적인 수익 실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이해하고 기업내 전 조직에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Responsible Care®는 북미 지역에서 시작이 된 이래, 화학산업에서 환경 보호, 에너지 소비구조의 개선 및 종업원의 안전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KRCC가 Responsible Care를 국내에서 추진해온지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 있어,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노력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KRCC에 의한 Responsible Care 시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기로 한다.

1. 제3자에 의한 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MSV)의 실시

제3자의 Verification은 Responsible Care를 실행하는 기업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이것은 Audit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주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 Responsible Care 정신이 전 조직을 통하여 실행이 되고 있는가?
- 실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가 정비되어 있는가?
- 위험/위기 관리의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의 실행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에 다루지 않기로 하자.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MSV를 통하여 최고 경영자로부터 현장의 근로자까지 Responsible Care의 중요도를 재삼 인식하게 하고, 모든 부서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제3자를 통하여 개선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2. Audit 실시

Audit은 Verification과는 달리 세세한 항목의 실행에 관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기업 별, 또는 사업장별로 등급이 구별되어 매겨지게 될 것이다. 각 회원사에서는 Audit을 통하여 개별 사업장의 업무가

노출이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Audit을 통하여 자신의 기업이 일정수준에 도달했거나, 우수한 체계를 갖추고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3. Responsible Care Awards의 도입

제3자에 의한 MSV 와 Audit이 회원사에 의해 수용이 되고 나면, 그를 토대로 시상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상제도가 연례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1) 시상제도의 목적을 회원사의 동의를 구하여 명확히 한다.

목적에 대한 회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시는, 회원사의 참여가 저조해 질 수 있으며, 시상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시상에 따른 이익이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돌아 올 수 있다면, 모든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으나, Responsible Care[®]가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추구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 시상제도의 적용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한다.

다음은 ACC의 Responsible Care[®] Awards Program을 요약한 것이다.

Certificate of Excellence¹⁾

자 격	회원
대 상	사업장별
시 상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없음 - 재해로 인한 종업원과 협력업체 인원의 근로손실이 없음.
수 상 자 수	제한없음
수상자선정	회사별로 자체선정
시 상 장 소	인증서를 우편발송, Greenbrier 프로그램에 명단 게재.
시 기	5월

1) 수상을 원하는 회원, 파트너는 ACC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Sustained Excellence Award

시 상 부 문	회원	파트너
자 격	회원 / 파트너	
대 상	회사별	
시 상 기 준	<u>선정기준:</u> - 과거 3년간 사망사고가 없음. - OII Rate(종업원과 협력업체의 합)가 상위 10%이내이거나, 규모별로 그룹 내 3위 이내일 것. - 회사의 수행평가에서 뚜렷한 향상이 있음. - Product Metrics에 대한 명확한 확인. - 인증수속의 정시수행실적 -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확보 체계에 대한 점검의 정시이행 실적. <u>추가신청자료:</u> - 보건, 안전 분야에서 회사의 우수한 실행사례.	
수 상 자 수	회원사 중 규모에 따른 그룹별 1개사로 총 3개사, 파트너 그룹별 1개사씩 총 3개사 선정.	
수상자선정	ACC에서 자격기준과 보충신청서를 근거로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함.	
시 상 장 소	Greenbrier	
시 기	6월	

Responsible Care Leadership Award

시 상 부 문	회원	파트너
자 격	회원 / 파트너	
대 상	회사별	
시 상 기 준	<u>선정기준:</u> - 과거 3년간 사망사고가 없음. - OII rate(종업원과 협력업체의 합)가 과거 3년간 ACC 평균치보다 우수. - 양호한 수행실적의 유지. - 안전확보체계의 검증 정시 수행. - Product Metrics에 대한 명확한 확인. <u>추가신청자료:</u> 다음 사항에서의 경영진의 참여에 대한 증빙자료 - 지역, 국가, ACC, 세계적인 Responsible Care 활동 참여 - Responsible Care 윤리를 전파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제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 - 지속적인 개선활동 유지 - Responsible Care Managing System의 적용 및 인증실적.	
수 상 자 수	3 회원사, 3 파트너: - 회원사 규모별 그룹당 1개사 선정(1개사 우등 지명, 나머지 2개사 차점자로 선정) - 파트너 그룹별로 1개사씩 선정(1-우등, 나머지 2개 회원 차점자로 선정)	
수상자선정	ACC에서 자격기준과 보충신청서를 근거로 선정하여 상패 수여.	
시 상 장 소	Greenbrier	
시 기	6월	

Leader of the Year Award

자 격	회원 / 파트너
대 상	개인
시 상 기 준	지난해에 기업과 산업계 전반의 업적 개선에 기여하고, 외부의 신뢰와 좋은 평판을 얻는데 특출한 지도력을 발휘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상함.
수 상 자 수	회원사와 파트너에서 각 1인씩 선정
수상자선정	지역의 코디네이터 그룹들이 지명한 후 시상위원회에서 선정.
시 상 장 소	Responsible Care Conference
시 기	5월

시상위원회는 매년 4월 소집되어 Sustained Excellent, Leadership, Leader of the Year Award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5명의 공신력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며, 매년 교체된다. 이 인원은 타 업계의 협회, 규제기관, 학계, 노조, 법조계 인사와 함께, Responsible Care에 관여하지 않는 ACC 인원 중에서 선정될 수 있다.


KRCC에서의 시상제도 또한 ACC의 프로그램을 상당부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되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많은 회원사의 동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업장별로 전체 또는 일부 Responsible Care Code의 실행에 대한 인증을 한시적으로 주고, 주기적인 Audit을 통하여 인증의 연장을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인증을 획득, 유지하고 있는 회원사 중에서 회원사에 대한 시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 3rd party에 의한 Management System Verification의 활성화
- Verification 및 Audit을 위한 인원의 양성
- Responsible Care Management 이점의 홍보 및 Audit 실시에 대한 구속력의 확보

전 Responsible Care 실행코드에 대하여 Audit의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다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따라서 KRCC의 Responsible Care Awards의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중에 회원사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MSV 도입 → Audit 실시 → Awards Program 도입
- Responsible Care Codes 중 일부에 대하여 Awards Program 도입, MSV & Audit 병행실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코드가 모든 회원사의 참여 유도 및 계량적인 평가에 있어 타 코드에 비해 우 선적으로 선택되었으면 한다.)

이상으로 몇 가지 Responsible Care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마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Responsible Care에 따른 관리가 환경, 안전 담당부서만이 아닌 모든 화학산업계의 최고 관리자로부터 회원사의 외부 협력업체의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일상화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시행이 되었으면 한다. 

■ KRCC 제3회 및 제4회 아카데미 개최

한국RC협의회는 회원사와의 정보 공유와 환경·안전·보건 실무능력 향상, 화학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KRCC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지난 11월 16일과 12월 1일~3일에는 회원사 RC코디네이터 및 환경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제3회 및 제4회 아카데미가 각각 개최되었다.

서울 전경련회관(특2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아카데미는 '화학방재정보센터(現 화학방재연구센터) 소개와 운송사고 대응'을 주제로 하여 수송중 화학물질사고와 대응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운영될 화학방재정보서비스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소방방재청 중앙소방학교 제진주 교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화재 진압시에는 위험물의 종류별 대응방법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며, 취급자가 해당 물질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상태 화학방재연구센터장은 동 센터의 정보시스템 운영구조와 비상전 화응대 절차, 제공서비스와 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행위원회 유통분야 코드리더인 박인 부장(LG화학)은 준비중인 '유통' 코드의 실행 지침(안)을 소개하는 한편, 자사의 유통과정 비상 대응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4회 KRCC아카데미는 '환경·안전·RC코디네이터 연례워크숍'으로서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허원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RC의 확산과 실행에 있어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으며, 전체행사는 화학산업의 효율적인 RC 운영방안, 비상대응 프로그램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접근, 향후 추진사업 및 정보공유, RC신규코드 제정에 관한 분임조 토의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 중인 안전·보건·환경 및 품질(SHE&Q) 통합관리에 관한 OECD모형을 소개한 권혁면 기술위원을 비롯하여, 엄성인 (주)아스프 사장, 김경해 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사장 등 외부강사의 강연과 함께, 각 주제에 대한 회원사의 사례가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석유화학(우종관 부장)에서는 RC통합심사 적용사례를, LG석유화학(정채훈 팀장)은 자사의 비상재난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Peer Review로서 대림산업(김승원 팀장)과 삼남석유화학(이수현 팀장)의 RC 활동 사례가 소개되었다. 또한 신규코드 제정안 검토를 위한 분임조 토의가 지역사회인식과 비상대응(리더: 이형식 과장), 유통(리더: LG화학 박인 부장), 제품전과정책임주의(리더: 한화석유화학 박정현 과장) 등 각 코드리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국RC협의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환경·안전·RC코디네이터 연례워크숍'을 통해 앞으로도 RC코디네이터 및 회원사 환경안전 실무자들간의 정보교류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화학방재정보서비스 산학협정 체결



한국RC협의회는 11월 19일 한화석유화학 회의실에서 허원준 회장과 인제대학교 성장모 총장, 한국RC협의회 이창수 홍보위원장, 화학방재연구센터 정상태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대학교와 화학방재정보서비스에 관한 산학협정을 체결하였다. 화학방재정보서비스는 비상전화(080-090-3456)를 이용하여 화학제품 수송 및 사고 시 대응 정보를 무료로 신속히 제공하는 것으로, 본 서비스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향상되어 피해규모 축소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선도화학기업들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번 산학협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화학기업들도 향후 2년간 별도의 회비 부담 없이 본 서비스의 제공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민간 방재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화석유화학, 동석석유화학, 삼성토탈, LG석유화학, LG화학, 여천NCC,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 RCLG2004 총회

Responsible Care의 세계적인 확산과 활동을 관장하는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회의가 11월 16일 ~19일 이탈리아 로마(아타호텔 빌라팜필리)에서 각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RCLG 2004 회의는 특히 지난 10월 ICCA 이사회에서 채택된 세계RC헌장(Global Responsible Care Charter)과 관련하여, 제품전과정책임주의와 능력배양의 문제, 상호지원 및 성과 개선과 측정, 지역사회와의 대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 앞으로 각 회원국 단체 및 RCLG가 각 분야별로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 화학산업의 Responsible Care 활동 20주년을 맞아 RC헌장을 발표하는 기념식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이와 함께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도 유관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그 밖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5개국의 신규 회원 가입이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어 RCLG 회원국은 현재 총 52개국으로 증가되었다.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



한국RC협의회는 지난 12월 21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30/50프로그램)' 체결에 추진협력단체로 참여하였다. '30/50프로그램'이란 사업장별로 협약체결 후 3년 내(2007년)에 30%, 5년 내(2009년)에 50% 감축을 목표로, 화학물질의 생산 및 사용 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한국RC협의회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3개 단체, 소비, 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한화석유화학 등 9개 기업(17개 사업장)이 참여한 이번 시범체결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부터는 참가 희망기업을 공모하고, 지역별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이형식 Hyung-Sik Lee
기술공정팀 EQS리더
EQS Leader, Technical Team

일반적으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환경·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Responsible Care를 별도의 경영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들과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나, 환경이면 환경경영시스템, 안전·보건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처럼 각각 개별로 관리하던 것을 환경·안전·보건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틀에다 놓고 총괄 운영해야 한다고 하니 Responsible Care를 실천하는 것은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호남석유화학은 2001년부터 한국Responsible Care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다. 비상대응 코드의 주관사로 활동하면서 실행지침을 개발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공유하여 왔었다. 그러나 대외활동이 활발한 반면에 사내 Responsible Care는 2004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정도로 Responsible Care의 실천 방법을 찾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해야 했었다. 리코 창업자인 이치무라 기요시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1이라고 하면 기획(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2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100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실천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 이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요점을 나열해 본다.

첫째, Responsible Care를 재검토하고 회사의 실정에 맞도록 접근한다. Responsible Care는 외국산(産)이다.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회사에 적용하다 보면 어디인가 모르게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점차 전체의 많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 나중에는 모양만 존재하고 실천은 없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Responsible Care의 기본사상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우리 회사는 무엇이 취약하고 개선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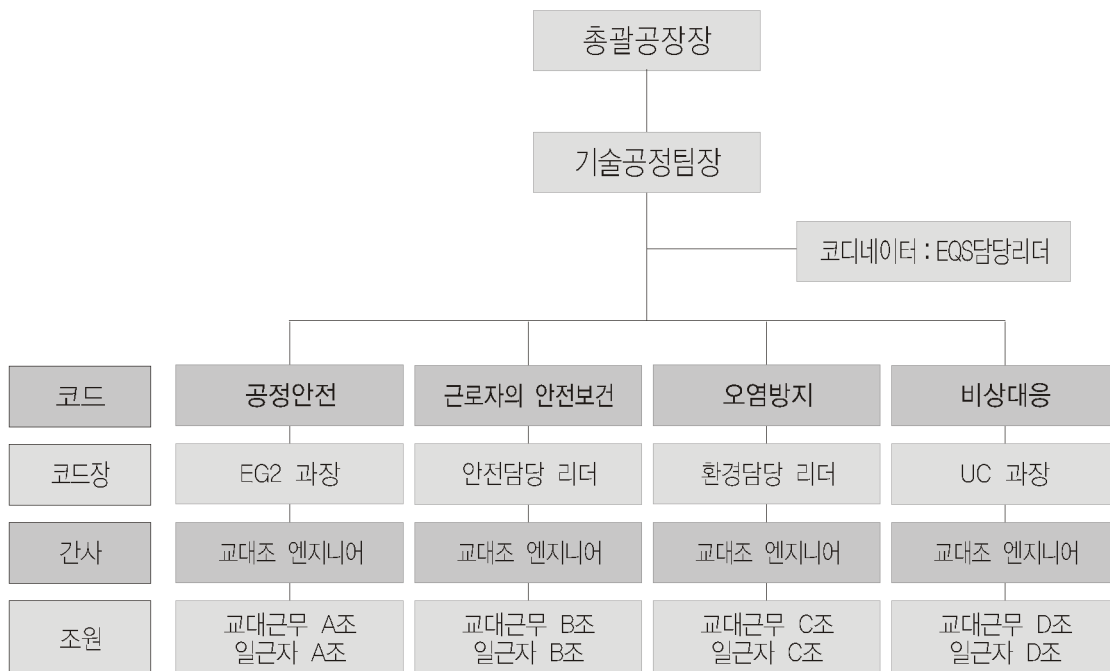
둘째, 실천가능하고 정량적인 환경·안전·보건 목표를 찾는다. Responsible Care의 관점에서는 회사의 모든 환경·안전·보건 관리의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수치화하여 전임직원들에게 공포하고 각 하위부서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세부목표를 수치화하여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실천항목을 발굴하여 전임직원이 관심을 갖도록 한다. 환경·안전·보건 목표와 부서별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항목이 필요하다. 하나의 목표가 선정되면 우리 개개인은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



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발굴하여 계획에 따라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점검하고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넷째,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은 누구라도 하나의 코드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공장장이 공정안전 코드에 소속되어 있다면 부공장장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또 다른 임원은 비상대응 이나 오염방지 코드의 소속원으로 활동을 하고, 4개의 교대근무조가 있는 경우 각 교대조가 공정안전, 근로자의 비상대응, 오염방지, 비상대응 등 4개 코드로 활동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근자들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편성을 하여 담당코드를 지정한다.



이상과 같이 기술한 고려사항을 토대로 호남석유화학의 Responsible Care 실천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Responsible Care Task Force Team 운영

4개 코드에 대해 각 코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Responsible Care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코드별로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총 24명의 Responsible Care TFT를 운영한다. 코드장은 각 코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현업리더로 선임하고 팀원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은 해당부서의 자기직무를 수행하면서 Responsible Care와 관련된 Workshop과 Self-Assessment 등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코드장 : 비상대응 & 공정안전-생산과장, 근로자의안전보건-안전리더, 오염방지-환경리더 등 4명 / 팀원 : 각 교대조에서 선임된 엔지니어 5명씩 20명)



● 주기적인 Responsible Care Workshop 실시



Responsible Care TFT를 주축으로 분기별로 Workshop를 실시하여 Responsible Care 팀원들이 Responsible Care에 대한 지식을 보다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 소속부서에서 Responsible Care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elf-Assessment를 대비하여 평가기법, 평가내용, 평가일정 등을 Workshop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Self-Assessment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교대근무 활동을 대상으로 Self-Assessment 실시

호남석유화학에서는 일반적인 점검이나 평가가 사무실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실제 손과 발로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였으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화학공장의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위험요소와 1차로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생산현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설비를 다루고, 현장을 점검하고 순찰하는 근무자들에게 평소 가지고 있던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Responsible Care라고 하는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보다 빠르게 보급하여 호남석유화학의 Responsible Care 실천 활동이 정착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

● Responsible Care 활동 수첩 활용

효율적인 Responsible Care 실천을 위해 "Responsible Care 활동 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작업복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 항상,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Responsible Care도 홍보하고 환경·안전·보건 활동도 이 수첩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수첩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영목표
2. 환경·안전·보건목표
3. 기업이념 & 경영방침
4. 환경·안전·보건 방침
5. Responsible Care 기본방침
6. 코드별 실행지침
7. 코드별 실천항목
8. Responsible Care TFT 조직도
9. Responsible Care 일정표
10. 활동실적점검표
11. Self-Assessment Checklist
12. 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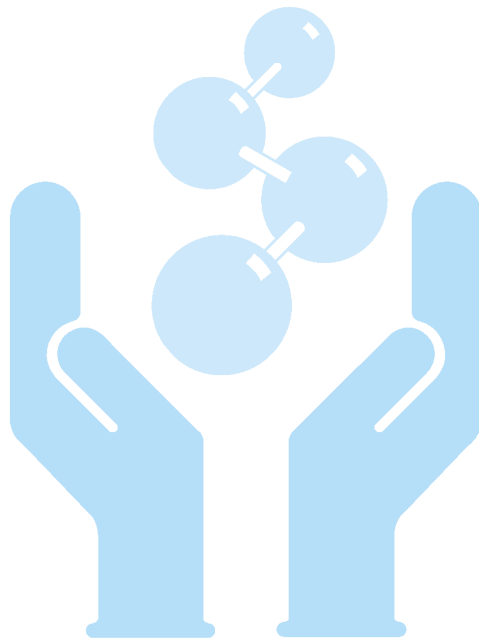




홍보기능 외에 이 수첩의 독특한 기능은 평소에 늘 해오던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Responsible Care 코드별로 분류하고 각 수첩 소지자가 '일정표'에 기록하여 계획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활동실적점검표'에 기록하여 우리 개개인이 Responsible Care 활동에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요약해 보면 이 수첩은 ①사업장 모든 임직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Responsible Care를 홍보하는 데 기여했고, ②현장근무자들이 Responsible Care의 용어보다는 먼저 피부로 느끼게 하여, Responsible Care가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호남석유화학은 Responsible Care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실천방안을 내고 서로를 독려하며 추진계획에 따라 착실히 전개하였으나, 교대근무자로 구성된 TFT의 운영상 애로 사항, Self-Assessment 수행의 전문성 미흡, 전체적으로 많은 횟수의 Self-Assessment 등 아쉬운 점들도 도출되었다.

Responsible Care 활동이 하루아침에 정착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의 문화를 충분히 흡수하고 질 좋은 토양으로 거듭나면서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Responsible Care 활동을 통해 Responsible Care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사의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향후 한국토양에 걸맞은 환경·안전·보건 문화가 조성되리라 굳게 믿는다.





■ 동서석유화학(주) '제1회 RC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동서석유화학(대표: 이균철)은 11월 22일, 24일 양일에 걸쳐 현장 실무책임자 32명을 대상으로 '제1회 RC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RC 활동의 실질적인 활동주체인 현장감독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향후 바람직한 활동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되었다. 참석자들은 2004년도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시스템에 대해 실무자의 설명을 통한 이해를 증대하고, 활발한 조별 주제토의 및 발표회를 거쳐 RC 활동에 있어서의 자기반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었다. 동서석유화학은 이번 워크샵의 결과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간 협의 및 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도 RC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삼성석유화학(주)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 인정



삼성석유화학(대표: 허태하)은 서산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2004.11.8~2007.11.7)되는 한편, 지난 11월 24일에는 울산사업장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협약(VA)' 우수사업장 인정서를 받았다. 환경친화기업은 환경부가 지난 1995년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친환경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녹지비율, 배출가스, 수질환경 등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이 필요하다. 서산사업장은 사업장 총면적의 4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한편, 혐기성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대체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저감하는 성과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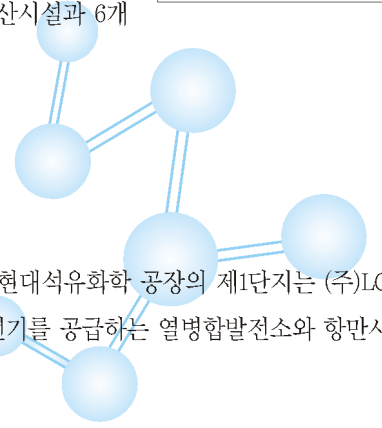
■ (주)아토피나코리아 '(주)아케마'로 사명 변경

아토피나코리아(대표: 이브 듀브아)는 토탈그룹의 화학부문 조직 개편에 의해 아케마그룹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사명을 '(주)아케마'로 변경하고, 사무실을 소공동 동양화학빌딩(11층)으로 이전하였다. 아케마그룹은 현재 유럽과 북미, 아시아 지역에 100여개 생산시설과 6개의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 현대석유화학(주) 3개사로 분할

현대석유화학이 2005년 1월 1일부터 3개 회사로 분할되었다. 대산에 위치한 현대석유화학 공장의 제1단지는 (주)LG 대산유화로, 제2단지는 (주)롯데대산유화로 각각 신설되었으며, 이들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항만시설은 (주)씨텍으로 존속하게 된다.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SAICM)의 추진배경과 전망

SAICM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역량 차이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UNEP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 화학산업계는 능력배양의 문제가 국제 화학관리의 중점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며 현재 Steering Committee에 참여하고 있다. 본 호에서는 금년에 제3차 준비회의를 앞두고 있는 SAICM 추진 동향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김효정 사무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1. SAICM의 개념과 추진배경

UN은 1972년 인간과 환경에 관한 UN회의(UNCHE)를 개최하고, 향후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담할 조직으로 UN 환경계획(UNEP)을 설립하였다. UNEP 산하에 UNEP Chemicals라는 산하기구 조직을 두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보전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대기보전, 해양생물자원 보호,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각 분야별 실천계획을 담은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의제 21 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부문을 다룬 제19장은 화학물질 위해성에 대한 평가 확대, 분류·표시의 조화 등 세부 실천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으로 화학물질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권고하였으며, 이 권고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4년 4월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FCS : Intergovern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가 구성되었다.

2002년 개최된 환경정상회의¹⁾에서는 1992년 의제 21 화학물질관리분야(제19장)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2020년까지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한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를 구현하며,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역량 제고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에 따른 건강·환경 위해성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WSSD 2020 GOAL'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UN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화학물질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국가·지역·국제적으로 추진할 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제화학물질관리전략, 즉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이다.

이를 위해 IOMC(Inter Organization on the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World bank, IFCS, UNDP(UN Development Program)가 조정그룹(Steering Group)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장관급(고위급) 선언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준비회의가 2003(방콕), 2004(나이로비)년에 걸쳐 두 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금년에 제 3차 준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1)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2. 제1, 2차 준비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2003년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준비회의는 123개국 UN회원국, UNDP 등 11개 UN 산하기구, IFCS 등 4개 국제기구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SAICM 진전을 위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이어서 2004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115개국 UN회원국, 5개 UN 산하기구, 4개 국제기구, Greenpeace 등 16개 NGO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준비회의에서 마련된 기본 골격을 토대로 향후 SAICM 진척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법 및 이행 수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2번의 준비회의를 거쳐 논의된 사항은 크게 정치적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 구조(Overarching political Strategy), 구체적 이행수단(Concrete measures), 고위급 선언(High-level declaration)관련 사항이다.

1) 정치적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

정치적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는 논의범위 설정(Scope), 필요성(Statement of needs), 목적(Objectives), 재정문제(Financial Considerations), 원칙과 접근방식(Principles and approaches), 이행과 진척(Implementation and taking stock of progress)으로 설정되었다.

첫째, 논의범위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환경·경제·사회·보건 및 노동 측면의 화학물질 안전과 농업용·산업용 화학제품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전생애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의 축적된 수단과 과정들을 고려하되, 새로운 수단 등을 중복없이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SAICM의 필요성은 WSSD 2020 GOAL 달성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화학물질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추진과제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유용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활동의 중복을 방지한다.

셋째, SAICM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감소, WSSD 2020 GOAL달성을 위한 지식과 정보 교류(knowledge and information), 이해관계자간 및 농업·작업장 안전 등 다른 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Governance), 개도국과 선진국간 역량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협력(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국제적 불법 거래(Illegal international trafficking) 금지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금조달 체제 형성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기존 체제의 활용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은 새로운 자원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도국간 이견이 2차 준비회의에서도 계속되었고, 결국 지역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하였다.

다섯째, SAICM의 원칙 및 접근방식으로 사전예방의 접근(prevention), 오염자 부담의 원칙(polluter pays), 알 권리, 화학물질 전생애적 접근(life-cycle approach) 등이 제안되었고 좀 더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국제적 협정을 이용한 원칙과 접근의 합의가 제안되었다.

끝으로, 이행과 진척은 2차 준비회의에서 별도의 작업반을 이루어 구체적 이행 수단을 논의하였으며, 이외에 모니터링 포함이 제안되었다.



2) 구체적 이행수단

구체적 이행수단은 1차 회의 결과 및 아프리카, EU 그룹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차 준비회의에서 SAICM의 목적별로 필요한 수단들을 5가지로 다시 분류하였다. 즉, 위해성감소, 지식과 정보 교류, 거버넌스 형성, 역량 형성 및 기술적 협력, 국제적 불법 거래 금지의 5가지 목적별로 활동(Activities), 주요 역할 주체(Main Actors), 목표 및 실행 계획(Targets/Timeframes), 성과지수(Indicator of Progress), 이행(Implementation aspects)에 관한 매트릭스 구조를 작성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행수단의 논의 구조로 채택되었고, 3차 준비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간 활동을 통하여 매트릭스를 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3) 고위급 선언

고위급 선언과 관련하여 2차 준비회의까지 12개의 사항을 포함한 초안을 채택하였다.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 계획 이행이 선언의 기본이 되며 화학물질 관리 방식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 및 WSSD 2020 GOAL 달성 및 개도국과 선진국의 역량 차이 극복 등이 중심 내용이다.

차기 회의 전까지의 활동은 지역 그룹간 회의가 중심이 될 것이며, 자금문제, 구체적 이행 수단, 그리고 고위급 선언 관련 사항이 주요 의제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각국 정부 및 우리나라의 입장

SAICM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역량 차이 극복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국의 입장은 지역그룹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그룹, EU국가, JUSCANZ(OECD 국가 중 비EU 국가), GRULAC(라틴국가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 아프리카 그룹, G77/중국 그룹 등으로 분류되어 소회의가 개최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가그룹의 입장차이는 특히 재정문제 논의에서 현격히 드러났다. 개도국 그룹을 대표하는 G77/중국, 아프리카 그룹 등은 새로운 자원(new and additional resources) 형성을 주장하였고, 선진국인 EU그룹, 미국, 일본 등은 이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술이전과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UNITAR 등 기존 제도 및 성과물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아프리카 그룹이 EU 및 선진국의 입장에 대변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고, G77 및 GRURAC 그룹 또한 입장 개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그룹과 JUSCANZ 그룹에 속해 있다.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경우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이 필리핀, 몰디브 등 개도국으로서 전체적으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OECD의 비EU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등으로 구성되는 JUSCANZ 그룹은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은다. 우리나라는 '96년 OECD 가입 이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환경 특히 화학물질 관리 분

야에 대한 정부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미국, 일본, EU국가 등과 비교할 때 선진화된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선진국 간의 논쟁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전체 동향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및 과제

올해 예정되어 있는 3차 준비회의에서는 구체적 이행 수단과 고위급 선언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며, 재정문제 등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06년 고위급 선언과 지구차원의 화학물질 관리전략이 채택된다면, 이로써 세계적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큰 틀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SAICM이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전생애주기적 관리를 통해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활동방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화학물질 관리가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AICM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화학물질 관련정보 공유 및 기술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화학물질 관리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획득가능한 선진국의 화학물질 관련정보와 활용가능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SAICM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국내 화학물질 관리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는 국민의 보건 및 국내 환경 보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요소이다. 또한 경제와 정치,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의 목소리가 커지고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이는 SAICM이 주요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형성, 파트너십 구축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협조는 창구가 통일될 경우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SAICM이 환경 뿐 아니라 사회·보건·경제적 분야까지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관련부처와의 통합된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산업계 또한 화학 관련 협회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일된 목소리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및 정책 방향 등을 피력하고 화학물질 관리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일되고 통일된 대화 채널을 통해 실용화가 가능하고 국제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배출저감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개발 등에 보다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은 큰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기술 및 물질 순환이 빠른 화학 관련 산업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의 국제 동향 파악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한 동향 파악뿐 아니라 국제 화학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esponsible Care 운동에 국내 화학기업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 나아가 ICCA(국제화학단체협의회) 등 국제단체 회원 가입 추진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 및 산업계의 화학물질관리가 보다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